

# 너는 내 운명

## 에이즈 인식을 바꾼 영화

글\_ 박종윤 · 본회 인권복지과장



한국영화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해외의 내로라하는 영화제에서 수상을 하는 지금 많은 소재의 영화가 제작되고 있지만 시작부터 몇 번의 우여곡절을 겪은 영화가 있으니 바로 “너는 내 운명”이다. 제작의 어려움을 겪은 영화가 어디 이 영화 뿐이었겠나만은, 에이즈를 소재로 다룬 영화라서인지 나에게서는 제작자들의 고충이 더욱 공감이 된다.

지금까지 여러 언론영상매체를 통해서 감염인의 타의적 희생이 반복되었고, 그럼에도 희생된 감염인의 바람과는 달리 에이즈에 대한 긍정적 변화를 유도하지 못하고 제작자의 잇속챙기기에 급급했던 현실이 이 영화에 대한 관심과 우려를 갖게 하였다.

시사회에 이어 개봉을 하면서 이 영화에 대한 평가는 대조적이며 많은 말들이 오고갔다. 당사자인 감염인은 에이즈로 인한 피해 특히, 구모씨의 비극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 씁쓸한 아쉬움을 넘어선 울분의 눈물을 짓게 했고, 많은 대중들에게는 인생의 마침표인 에이즈를 초월한 두 남녀의 사랑에 감동의 눈물을 자아내게 했다.

실화영화 임에도 불구하고 구모씨가 둘째아이 임신과정에서 양성판정 받은 사실이나 인신매매로 인한 강요된 성매매 과정에서 구속된 사유 등이 사실과 달리 묘사되었으며, 보건소직원의 본인 통보를 무시한 것과 왜 그 여자를 책임자냐며



당신 죽는다고 말하는 장면이라든가, 이웃이 석중을 외면하며 소금을 뿌리는 장면, 그리고 교도소 수감자들의 손가락질 등 많은 편견과 차별적 요소가 드러나지만, 특히 언론에 의해 무참히 유린당한 인권에 대한 비중이 너무나도 단순하고 가볍게 표현되었다.

### 편견과 차별 요소 있었으나 에이즈에 대한 거부감 없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즈에 대해 전혀 모르던 몇몇 사람과 이 영화를 보고 난 후 느낌을 나누면서 이 영화 "너는 내 운명"은 에이즈와 감염인에 대한 인식전환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들의 공통된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에이즈가 일상생활로는 전파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둘째, 에이즈는 나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나와 내 남편(아내)은 물론이고 내 주위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내 남편부터 검사를 좀 받아보라고 해야겠다.

셋째, 내 주위에 감염인이 있다면 배척하지 않을 것 같다.

위 내용이 영화를 본 모든 이들의 의견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그러나 2주 연속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며 개봉 2주 만에 200만 명 관객을 동원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볼 것으로 기대되는데, 그들 중 일부인 몇만 또는 몇십만명 이상이 위와 같이 느낀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 간절할 바람을 가져본다.

포털사이트에 "너는 내 운명"의 2002년 기사들이 돌고 있고, 각종 카페와 블로그, 싸이월드에도 활발한 이야기들이 오고 간다.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영화였다는 진한 감동의 이야기들이다. 에이즈가 우려의 대상 아닌, 언론에 짓밟히지 않은 채로 감동과 눈물로 회자되었던 적이 있었는가?

진지한 접근은 아니지만, "너는 내 운명"은 대중과 거부감 없는 에이즈의 접점을 만들어 주었다. 우리는 이런 기회의 창을 통해 우리의 현실에 대해 제대로 알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제2, 제3의 "너는 내 운명"에는 우리의 작은 바람들이 실현되었으면 한다.

끝으로 최초로 감염인을 위한 특별사회를 준비해준 카노스 대표와 영화사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런 뜻 깊은 자리에 감염인이 선뜻 참석하지 못하는 현실에 또 한번 가슴이 아팠다.

